내포지역의

민속과 삶

임동권 (중앙대 명예교수)

1. 내포의 영역

내포지역의 문화를 논하려면 먼저 내포의 지리적 영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내포(內浦)란 글자의 뜻으로는 바다나 호수가 육지로 쑥 들어온 부분을 말하는바 동해안에는 내포가 없으나 서해안 즉 황해에 면한 곳에는 수심이 얕고 토양이 비옥해서 내포가 많다. 특히 충청남도 서해안에는 내포가 많다.

아산 · 당진 · 서산 · 홍성 · 보령지방의 해안에는 바다가 쑥 들어와 내포를 이루는 곳이 많고 지대가 낮아 대소의 소택(沼澤)이 많으니 합덕지(合德池)가 그 대표이다.

내포지역의 지명에 포(浦) 또는 곶(串)자가 붙은 곳이 많아 그 지역의 지형을 짐작케한다.

내포의 영역 설정에 대한 여러 논문들이 있어 학자에 따라서는 강경, 논산까지 내포에 편입하려는 이도 있다. 여기에서는 고종실록 홍주부(洪州府)에 관할 지역을 내포지역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洪城郡 結城郡 德山郡 韓山郡 舒川郡 庇仁郡 藍浦郡 保寧郡 林川郡 鴻山郡 瑞山郡 海美郡 唐津郡 泰安郡 大興郡 禮山郡 靑陽郡 新昌郡 溫陽郡 牙山郡 定山郡

현재의 행정구역으로 볼 때에 아산군 · 당진군 · 서산군 · 예산군 · 홍성군 · 보령군 · 서천군 · 부여군 · 청양군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 중에서 예산군 청양군 부여군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바다에 접해 있어서 지금의 충청남도의 서북부(西北部)가 내포의 영역에 들어간다.

내포지역의 지리적 특징은 해안성(海岸性)과 평야(平野)을 지적할 수 있다.

내포지역은 바다가 육지로 쑥 들어와 만(灣)을 이루고 육지가 바다를 향해서 돌출한 곶(串)이 많기 때문에 해안선이 길다. 해안선이 길고 평야가 있으면 필연적으로 이곳에 사는 사람들

의 생활이 바다와 관계되는 생업은 즉 농업, 어업, 염업, 교역 등이 있기 마련이다.

내포지역에서 원양어업은 없으나 바다의 수심이 얕아서 패류(貝類)와 새우가 많아 새우젓이 특산물로 알려져 있고, 지리적 특성으로 중국과 가까워 교역과 인적 교류도 있었으니 당진(唐津)이란 지명이 지역의 역사성을 증명한다. 즉 바다와 관련되는 생활문화가 형성되기 마련이다.

내포지역은 높은 산이 적어 평야가 많고 비옥한 토양이어서 농경 위주의 생활을 하고있다. 농경지가 많으면 부촌이 많고 따라서 사람의 살림이 넉넉하니 인심이 후하고, 남에게 베풀 줄 알고, 호양(互讓)의 미풍을 낳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서로 어울려 공존하게 되고 협동할 수 있어 화평하니 살 맛이나는 환경이 조성된다.

내포지역이 변방 이라기 보다는 살기 좋은 곳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평야가 많고 땅이 비옥해서 농경민족으로서 넉넉한 살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포지역은 차령산맥의 끝 부분에서 벗어난 곳으로 대산(大山)이나 고산준령(高山峻嶺)이 없다. 가야산(伽倻山) 오서산(烏棲山) 칠갑산(七甲山)의 삼산(三山)이 있으나 그 주변은 비산비야(非山非野)여서 경작이 가능하여 생활의 터전이 되고 있다. 가야산은 서산과 예산 당진군에 걸쳐 퍼져 있어 경개도 좋거니와 그 물줄기는 일대의 농경지를 적시고 있으며 고찰인 수덕사(修德寺)가 알려져 있고, 오서산은 보령과 부여의 접경에 위치하여 바다와 내륙을 부감할 수 있고 무량사(無量寺)가 있으며, 칠갑산은 내륙 청양군에 위치하여 차령산맥에 속하나 내포의 동쪽 한계선에 위치하여 물이 흘러 금강에 합류하는데 농경수로 공급되며, 통일신라시대의 고찰인 장곡사(長谷寺)가 있다.

이렇듯 내포의 세 산이 생활수(生活水)와 생활재(生活材)을 공급하고 있으며 고대의 불교문화의 승지로 되어 있다.

즉 내포지방의 자연적 여건인 바다와 육지가 이 지역의 생활문화를 형성하는 기저를 이루고 있어서 내포지역 문화는 내포지역의 자연적 여건에서부터 이해되어야 한다.

2. 내포지역의 민속행사

1) 유왕산(留王山)놀이

부여 양화면(良化面)의 금강가에 유왕산(留王山)이 있고, 여기에서는 매년 음력 8월 17일에 유왕산놀이가 전승되고 있다.

현지에 전승되는 전설에 의하면 백제가 패망해서 당군에게 의자왕(義慈王)을 비롯해서 고관, 장졸등 약 만 팔천여명이 끌려갔는데 배를 타고 금강을 내려가서 유왕산 밑을 통과 했다.

나라가 망하고 임금이 포로가 되어 수많은 동포가 적지에 끌려가는 것이 통탄스러워 사람들이 유왕산에 모여 통곡하며 전송했다고 한다. 왕이 이곳을 통과한 것이 8월17일이기에 해마다 이날 백성들이 유왕산에 모여 옛일을 회상하면서 망국의 설움을 달랬다는 것이다.

현지의 전승에 의하면 왕을 전송한 외에도 추석을 지나 17일에 인근 백리 안의 부녀자들이 모여 음식을 먹고 일가친지와 만나 환담하여 하루를 즐겼다고 하니 "반보기" 행사와 중복되어 있다.

반보기란 시집가서 출가외인이 된 딸이 친정에 근친하고 싶지만 시부모의 눈치를 살피다가 추석이 지나서 친정과 미리 통문을 해서, 친정과 시집의 중간지점인 경치 좋은 정자, 산, 개울가 등의 지점에서 상봉하는 것이다.

옛날의 가족제도에서 며느리의 친정가기란 어려웠고, 또 농경사회에 있어

서는 가사일이 바빠 한가하게 몇 일씩 친정에 가서 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시집 눈치만 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반보기가 생겼다.

딸은 친정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어머니는 딸이 즐기는 음식을 가지고 와서 상봉하여 반나절 회포를 풀고, 담소하여 그 동안의 친정소식과 일가 친척, 이웃의 소식도 들어 궁금증을 풀게 된다. 그러나 저녁에는 집에 돌아가야 했으니 마음이 서운하고 충분하지 못했다. 마음 반만 채운것이라 해서 반보기라 했다.

유왕산놀이는 그 기원을 백제의 패망사와 관련시켜 기원했다고 하나 시대가 내려옴에 따라 조선시대 농촌의 가족제도에서, 추석을 보내고 농가의 한가한 틈을 타서 모녀간의 욕구를 최소한 충족시켜 주는 반보기와 습합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왕산놀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지 일제시에는 상인들이 몰려 장이 서고 임시로 경찰관이 파견되어 질서를 잡았다는 기록이 있다.

2) 등바루 놀이

보령군 장고도(長古島)에는 등바루놀이가 전승되고 있는데 내포 해안과 도서등 여러 곳에서 놀이되었다.

서해 도서민의 생활에 있어 굴은 큰 수입원이고 이곳 가정의 식탁에는 굴로 만든 요리와 젓갈이 오르고 있다. 또 향토요리로 큰 몫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정월 대보름이 되면 한해의 풍어를 빌고 굴을 불러들이는 행사가 있다.

대보름날 밤이 되면 마을 부녀자들이 모여 등불을 밝히고 굴을 불러들여 밥을 주는 시늉을 하면서 노래를 부른다.

굴아굴아
동해는 백석굴 이영이영 영하영
남해는 청석굴 어영소리가 하할영
북해는 북석굴 이영소리가 하할영
다른마을로 가지말고 이영이영 하할영
우리마을로 돌아와라 이영이영 하할영
엿다좋다 다모였네 이영이영 영하영

굴의 풍작을 간절히 소망하고 사해의 굴을 모두 불러들이는 것이다. 그래야 굴 풍년이 된다. 간절한 어민들의 소망이다.

굴을 불러들인 다음 굴이 서식할 수 있도록 돌을 주어다 쌓아 돌방을 만들고, 돌방에 붙어 서식하여 크게 자라면 굴 캐기를 하는데 이때 굴 캐기 노래를 부른다.

에야루 아노야 잘도한다 잘도해
조개잡이 잘도한다 어제도 여기서 살고
내일도 여기서 사네 바삭바삭 잘도 까네
해당화는 만발하고 오늘이 등바루날
용바위 경사났네 어얼시고 좋을시고

정월 대보름은 새해를 맞아 첫 만월이고 생산성 있는 부녀자들에 의해서 놀이되는 등바루 놀이는 풍어기원제(豊漁祈願祭)의 일종임을 알 수 있다.

3) 기지시(機池市) 줄다리기

당진군 송악(松嶽)에 줄다리기가 전하는데 기지시(機池市)줄다리기이다.

무형문화재 제75호이다. 이곳에는 옛날 직조(織造)가 성해서 실 꾸러미를 담궈두는 못이 있었으니 「틀무시」라 하여「틀모시」의 와전이며 한자로 쓰니 기지시(機池市)가 되었다.

송악 일대는 곡창으로 농사의 고장이며 바다에 인접해 있어서 어업이 성하고 갯벌이 많아 소금을 생산하는 염전이 많다. 틀무시에서는 매년 3월에 줄 다리기를 한다. 내륙 쪽을 물 위, 바다 쪽을 물아래로 구분해서 편을 갈라 천명을 헤아리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힘을 겨룬다.

기지시 줄다리기

마을 당산(堂山)으로 국사봉(國師峯 또는 國秀峯)이 있고 여기에 국사당이 있어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는 곳으로 되어있다. 정초(正初) 상원(上元)전에 국사당제를 지냈고, 줄다리기는 원래는 윤년 3월에 했으나 근래에는 해마다 하고 있다. 당제의 근처에 있는 신암사의 주지가 와서 山王經을 독경을 하니 당제(堂祭)가 무불(巫佛)이 습합(褶合)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줄다리기의 유래에 대하여 여러 설이 있으나 이곳의 지형이 풍수설로 보아 옥녀직금형(玉女織金形)이라 짠 천을 마전할 때에 양쪽에서 잡아당기므로 그 동작이 확대되어 집단이 잡아당기는 줄다리기로 발전했다는 주장과 또 일설에는 지네형국이어서 큰 줄에 곁줄을 달아 지네 발 모양으로 만들어 줄다리기를 하게 되었다는 설도 있다.

줄다리기는 그 결과로 농사의 풍흉(豊凶)을 미리 점치고 있어서 농사의 예축의례(豫祝儀禮)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이곳에서는 동(東), 서부(西部)로 편을 가르지 않고 수상(水上) 수하(水下)로 가르는데 내륙(內陸)쪽인 수상(水上)이 이기면 농사가 풍년들고, 수하(水下)가 이기면 바다 쪽 어촌이 풍어라 전한다. 줄다리기 임원(任員)들은 엄격한 금기를 지켜야 하며 시합의 승패가 끝나면 할머니들이 칼을 가지고 기다렸다가 줄을 끊어 간다. 줄을 지붕 위에 놓아두면 우환이 없고, 줄을 가지고 출어(出漁)를 하면 만선(滿船)을 하고, 여인이 삶아 먹으면 냉병(冷病)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4) 은산(恩山) 별신제

부여군 은산에는 별신제가 전승되고 있다. 은산은 백제의 도성(都城) 부여에서 불과 20리에 위치하여 부여에서 서북(西北)으로 통하는 요지였다. 백제가 패망 할 때에 현몽에 의해서 장병들의 시신을 수습해 주고 그 보답으로 돌림병을 치유하는 배경 설화가 있다.

한 해 걸러 이른 봄에 별신제를 거행하는데 물막기, 조라담그기, 지대베기,

꽃받기, 상당굿, 하당굿, 독산제, 장승세우기까지 10 여일에 걸친 큰 향토신제로 무형문화재 제9호로 지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별신제는 역병을 예방하고 퇴치해서 향민(鄕民)들이 질병이나 재앙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신(神)께 빌고 제를 지내는 민간신앙 행사인데 별신제로서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신제(神祭)이다.

진대베기란 부정이 없는 십리 안팎의 거리에 있는 방향의 산(山)에 가서 참나무 사본(四本)을 베서 오는데 산에서 신을 참나무에 모셔오는 셈이다. 진대는 제기동안 화주(化主)네집 뜰에 세워 두었다가 맨 마지막 날 장승을 세우고 그 옆에 꽂아 두는데 "후리채"라 부른다. 부정이나 악귀가 접근하면 이 후리채가 악귀를 구타해서 추방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인식 되어있다.

향민대표(鄕民代表)와 무녀(巫女)가 굿을 진행하며 화주(化主)집 출입을 금하고, 꽃 만들고, 조라술 담그는 과정에 부정을 막기위해 엄격한 금기(禁忌)가 있고, 제물 운반시에 입에 백지(白紙)를 물고 행진하며, 임원(任員)들은 내방(內房)출입을 삼가며 화주집에서 소찬만으로 밥을 먹고, 고두백배(叩頭百拜)하고 동네 세대주 모두의 소지(燒紙)를 올리는 등 향토신제 본연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무녀가 굿을 해서 사령기(司令旗) 위에 달아맨 방울이 울리면 강신(降神)한 것이지만 아무리 굿을 해도 방울이 울리지 않으면 부정탄 증거이므로 임원 일동은 개울에 가서 목욕재계를 해야 한다.

제단에 올렸던 지화(紙花)는 동민(洞民)과 참조자에게 나누어 주는데 집안에 걸어두면 재앙을 막아 주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5) 황도리(黃島里) 풍어제

안면도(安眠島) 황도리(黃島里)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전승된 풍어제가 있으니 붕기놀이라 부르기도 한다.

정월 보름날 당산제를 지내는데 농사가 풍년 들고, 바다에 나아가 만선을 이루도록 비는 풍어제이다. 제사 지내는 당앞에 큰 기를 세우니 붕기이다.

붕기는 긴 대나무를 여러 갈래로 쪼개서 그 가지 사이에 조화(造花)를 매단다.

붕기를 세워 풍어(豊漁)와 풍년(豊年)들기를 빈다. 이 때에 진대도 만들어 세운다.

현지의 전설에 의하면 옛날 밤에 풍랑을 만나 바다에서 헤맬 때에 붕기에 불이 켜져 그 빛을 보고 귀항할 수 있었는데 그 후로 풍어제를 꼭 지내게 되었다는 것이다.

풍어제는 무당에 의해서 부정(不淨)을 씻어내는 굿을 하며, 농악은 굿거리를 하고 호적은 시나위를 연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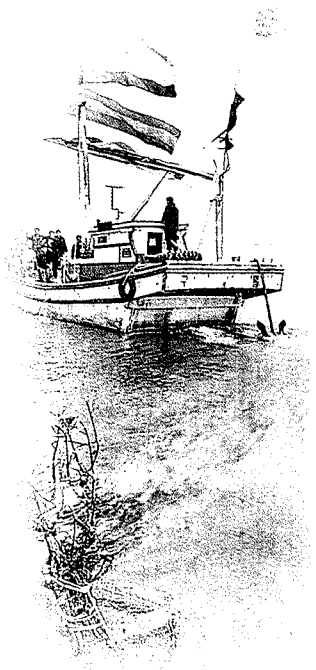
풍어제는 이름 그대로 어민들의 소원인 풍어를 비는 것으로 해안마을이나 도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민간신앙제이다.

먼저 농악대가 굿거리 장단을 치고 호적이 시나위를 불면서 당에 모이면 마을 사람들의 운집하고 분위기가 형성된다.

선주(船主)와 어부들이 붕기를 세우고 무당이 부정(不淨)굿부터 시작하여 축원을 한다.

풍어제는 신을 모셔다 제의를 올리고 신(神)을 즐겁게 하는 오신(娛神)이 있고 마지막으로 신을 봉송하는 순서인데 제의는 무당이 주재하고 선주 어민이 참여하지만 어촌에 있어서는 풍어는 생활을 보장하고, 또 바다가 일터이기 때문에 모두가 진집하고 공손한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게 된다.

이 때에 흥이 나서 음주가무(飮酒歌舞)하여 흥겨운 놀이판이 전개된다.



붕기풍어제

6) 동화제(洞火祭)

청양(靑陽)의 칠갑산 주변에는 장승이 많고 여러 마을에서 동화제를 올리고 있다.

장승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여러 곳의 장승들이 현대화 과정에서 소멸되고 또 새마을 운동으로 제거되어 이제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칠갑산 주변 여러 마을 입구에는 장승이 여전해서 이 지방인(地方人)들의 정서를 엿볼 수 있다. 칠갑산 장곡사(長谷寺) 앞에 장승공원이 있는 것도 그러한 신앙의 연장선에서 이해된다. 새해를 맞아 상원(上元)날 달이 솟을 무렵 동화제(洞火祭)가 있다.

마을 젊은이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 논이나 밭에 높이 탑처럼 쌓는다. 마을에 따라서는 동화터가 정해져 있어서 성역으로 여기는 곳도 있다.

농악을 치고 여흥을 하는 사이에 대보름 달이 솟으면 그 앞에 제상을 차리고 이장이나 노인이 헌주하고 제를 올리며 나무탑에 불을 지른다.

그러면 불은 순식간에 타 올라 화염이 충천하고 동민들은 농악에 맞추어 춤을 추고 한쪽에서 합장하고 소원을 빌고 불을 향해서 절을 하는 부인네도 있다.

대보름 만월은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가져오는 즉 제화초복(除禍招福)하는 효험이 있다고 믿어 동화제를 거행하는 것이며 마을 안의 부정을 씻고 동민이 무사태평하게 살 수 있다고 믿어 전승된 제의이다.

동화제를 지낸 다음날 마을 입구에 장승을 세운다. 재앙이나 역병이나 부정이 길을 따라 마을로 들어온다고 믿어 동구(洞口) 길목에 장승을 세워두면 이러한 것을 모두 막아 차단하려는 것이다.

탈없이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새해의 첫 만월에 동화제로 정화하고 장승을 세워 부정을 막아 주기를 기대한 것이다.

7) 보부상(褓負商)

내포문화를 거론 할 때에 보부상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다. 보부상이 내포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상권(商權)을 행사했으나 이제는 다 소멸되고 유독 내포지방에만 그 유습이 전승되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보부상이란 물건을 운반 할 때에 등에 짊어지거나 보로 싸서 들고 다니거나 머리 위에 얹고 가는 것을 뜻하여 소위 등짐과 봇짐장사를 말한다.

보부상제도의 역사는 조선조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 태조에 충성한 보부상이 어, 감, 수철, 목물, 토기, 곡물, 백지의 7종 전매권을 얻어 상인조직이 되었으며 그 후 국난이 있을 때에는 장돌뱅이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적정을 정찰하고, 군량을 운반하고, 통신연락을 하는 등 평상시는 장돌뱅이 상인에 불과했으나 유사시에는 병사(兵士)가 되어 국난극

복에 기여했다. 대원군이 보부상을 규합해서 도반수가 되어 정치에 이용한 일도 있어 세력을 형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제가 들어와 보부상 조직은 해산되었으나 상무사(商務社)로 개편되어 그 기능은 겨우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는 상거제에서 밀려나 그 유풍만 남아있다.

보부상의 유풍이 남아있는 곳이 예산(禮山) 덕산(德山) 임천(林川) 홍산(鴻山) 한산(韓山) 등지인 바 모두 내포권이다. 즉 내포지역에 보부상 조직이 잘 운영되어 오늘날에도 그 여맥이 유지되고 있으며 지역문화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즉 현지인의 정서에 수용되어 계승되고 있는 것이다.

보부상 유품(遺品), 문서 중 홍산 7점, 예산, 덕산 126점, 홍성 40점, 보령 3점이 국가에서 민속자료로 지정되어 있고 한산모시는 그 일대 저산 8邑에서 생산되었고 상업조직도 매우 컸던 것으로 전한다.

3. 내포의 민요

내포지방은 지리적으로 경향(京鄕)과 인접하여 왕래가 잦아서 경풍(京風)과 유사한 점이 많다. 옛부터 충청도인(忠淸道人)의 기질을 청풍명월(淸風明月)이라 하였거니와 인정이 돈후하고, 선비의 기질을 소유하고, 타협적 성격을 가졌으며, 엄한 가풍을 자랑하고, 기름진 평야지대에서 비교적 안정되고 평온, 윤택한 생활을 하여왔다. 그들이 청풍명월인 까닭에 우유 부단한 경향도 있지마는 그 반면에 강열한 의지를 관철하는 신념의 투사란 것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 윤봉길 의사, 김좌진 장군, 그리고 유관순 의사의 고장이 바로 이곳이란 것으로 증명된다.

민요는 향토성이 짙어 향토적 특성을 규명하는 데 좋은 방증이 될 수 있으므로, 민요 전반을 논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주제의 제한이 있어서, 여기에서는 내포지역 향토성과 지명이 등장하는 노래 만을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천안 삼거리 흥
  늘어진 버들은 흥
제멋에 겨워서 흥
  척 늘어 졌고나 흥
에로와 좋구나 흥
  성화가 났구나 흥
은하(銀河) 오작교(烏鵲橋)가 흥
  다 무너졌으나 흥
건너갈 길이 막연하고나 흥
  에로와 좋구나 흥
성화가 났구나 흥
  계변양유(溪邊楊柳)가 흥
사사록인데 흥
  그버들가지가 유색신(有色新)이로다 흥
에로와 좋구나 흥
  성화가 났구나 흥

천안 삼거리의 흥타령은 너무나 유명하다. 흥겨운 가락에 유창한 가사의 맛은 언제 어디서 들어도 싫증이 나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생활 감정이나 호흡과 일치한다. 일설에는 이 노래가 주구자(誅求者)의 원차(怨嗟)에서 생긴 것이라 한다.

온양온천 시내에는
  건달만 모여들고
오서산(烏棲山) 상상봉(上上峯)에는
  나무꾼만 모여든다
에헤야뉴 야뉴 여기여차
  뱃노래 가잔다.

천안에서 장항선을 타고 가면 머지않아 온양온천에 도착한다. 이곳은 온천인 만큼 유흥도시의 분위기가 농후해서 주로 서울 등지에서 모여드는 건달 청년들이 많은데, 그들을 현지인들은 존경하거나 친밀감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백안시(白眼視)하는 것이다. 휴식이나 향락(享樂)을 모르는 농민들은 때로는 선

량한 휴양객도 건달로 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오서산은 광천읍의 동남방(東南方)에 자리 잡고 있어 민요에서 흔히 불러진다.

아버지 아버지 나 양산사주
  온양온천 쪽다리 밑에 구경갈까

온양온천은 소비도시이며 유흥도시인 만큼 구경거리가 된다. 아버지보고 양산을 사달라 조르는 딸의 마음은 벌써 온천 기분에 젖어 있기 때문이다.

바위야 바위야 뜬바위야
  달래야 달래야 진달래야
곱사대야 문열어라
  춘향이 얼굴 다시보자.
너 죽어서 꽃이되고
  나 죽어서 나비된다.
나비됐다 설어마라
  꽃밭에로 날아든다.

원형을 간직하지 못하고 불완전하게 혼합(混合)된 노래인데 종구(終句)에서 춘향(春香)을 거론하고 변정(變情)을 노래했다. 말을 타고 수철리 고개를 넘어간다고 했으니 『수철리』는 예산군 예산읍 북쪽 금오산 등 뒤에 있는 마을 수철리(水鐵里)를 말한다. 이곳은 사명당(四溟堂)의 탄생지란 전설이 있는 곳으로 읍에서 가자면 험한 고개를 넘어야 한다.

신고산이 우루룽
  함흥차 떠나는 소리
구고산 큰애기 반 보짐만 싼다.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난다.
듸여라 내사랑

역나다리 우루루
  화물차(貨物車)가는 소리
고무공장 큰 애기 벤도밥만 싼다.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난다.
뒤여라 내사랑아

이 민요은 물론 함흥(咸興)지방의 신고산타령(新高山打令)이다. 철도가 부설되고 고무공장에 출퇴근하는 여직공의 현대적 변화를 노래한 것인데. 여러지방에 전파됨에 따라 그 지방의 색채를 띠게 되는 것이다. 역나다리는 예산역(禮山驛)에서 삽교쪽을 향해 오백미터 지점에 있는 무한천교(無限川橋)를 말한다. 예산에 고무 공장은 없지만 외지(外地)의 민요를 받아들여 그 지방에 있는 지명을 노래에 도입했던 것이다.

모가지없는 잡놈이
  목발없는 지게를 지고
길로길로 가다가
  동전한푼을 줏었네
놓고보니 공짜요
  들고보니 공짜요
올려다보니 오소산
  내려다보니 광천장
광천장으로 갔더니
  친구를 하나 만나서
오려송편 하나를 사놓고
  너먹어라 나먹어라 하다가
지레가 늘름거려서 먹었네
  국수전에를 갔더니
멀국차지는 내차지
  떡전으로 가면
고물차지는 내차지

동요(童謠)의 일종인 바 종구(終句)가 불완전 하다. 『오서산』은 오서산(烏棲山)이며 『광천장』은 광천장(廣川場)인 바 광천읍(廣川邑)은 홍성군에 소재하며 시장이 번창하기로 전국에서 유명하여 어물(漁物)과 곡물의 거래가 많다. 광천 동남쪽에 있는 오서산은 산림이 울창하고 높아서 부근의 야산들에 군림하여 멀리 서해바다를 내려다 보고 있다. 이 민요가 향토의 명산인 오서산과 그 밑에 번성한 광천시장을 중심 무대로 하였다.

에헤야 에헤야 데에야
오서산 꼭대기 쇠단풍 들었네
참나무 개상에 닭 잡고 술 먹세

참나무 개상에 보리타작 하는 것은 이곳의 탈곡 풍속이긴 하나, 단풍과 보리타작은 계절적으로 맞지 않아서 모순이다. 오서산은 높은 까닭에 그 단풍은 수십리 밖에서도 바라볼 수 있었을 것이다.

형님형님 사촌형님
  시집살이 어떻던가
시집살이 말도많고
  머슴살이 일도많고
삼각산엔 돌도많고
  요내가슴 수심도 많네
시아버니 체것은 호랑새요
  시어머니 체것은 앙앙새요
서방 체것은 몽리쟁이
  시뉘 체것은 한림새요
이웃체것은 쑥닥새요
  비단치마 눈물받아 다썩었네
시어머니방에 들어가니
  바느질대로 나를치네
내방이라고 들어가니
  서방체것이 붓대로 나를치네
부엌에로 들어가니
  시누체것이 불때다가
부지갱이로 나를치네
  뒷간에를 들어가니
머슴체것이 똥주까래로 나를치네
  동지섣달 긴긴밤에
바느질못밴 요내팔자
  삼사오륙 긴긴해에
광천독배로
  시집못간 요내팔자

시집살이의 고민을 노래한 부녀요(婦女謠)이다. 팔자타령에 있어 세 가지 원망은 첫째. 길쌈 못배운 것 둘째. 큰글 못배운 것 셋째로, 광천 독배로 출가못한 것을 말했다. 우리가 상식으로 판단해서 솜씨가 능숙치 못하고 배움이 없는 것은 신세타령을 할 수도 있겠으나 광천 독배가 얼마나 좋기에 이곳에 시집 못간 것을 원망했을까 하는 점이다. 독배는 광천시의 남쪽 해변으로 5리쯤에 있는 항구(港口)이다. 광천 시장에 반입되는 어물(漁物)들은 모두 이곳을 통해서 들어왔으니 돈벌이가 좋았던 것 같다. 그러나 주민의 대부분이 어업(漁業)에 종사하고 있었지만 생계는 그다지 윤택치 못하다. 혹시 육지 산촌 출신으로 농사일에 시달였거나 생선에 맛들린 처녀의 소망인지도 모르겠다.

우리집 서방님은
  잘났던지 못났던지
후도뿔 대가리
  실내끼 모가지
장구통 배에 공채 다리에
  공주읍내로 길 감독을 갔는데
남의집 서방님은
  밭 이랑만 헤맨다.

남의 남편은 도로 감독임을 자랑하고 있는데 나의 남편은 겨우 농사꾼임을 말하고 있다. 그 묘사가 너무나 풍자(諷刺)적이어서 해학요(諧謔謠)가 되었다. 공주읍은 백제의 고도요 교육도시로 유명하다.

다음 끝으로 충청도 장타령을 예시한다.

껑충뛰었다. 제천(堤川)장
  신발이 없어서 못보고
바람이분다 청풍(靑風)장
  선선해서 못보고
청주(淸州)장을 보잤드니
  술이 취해서 못보고
황간장을 보잤드니
  영감이 많아서 못보고
예산(禮山)장을 보잤드니
  예산이 틀려서 못보고
온양(溫陽)장을 보잤드니
  건달이 많아서 못보고

아산(牙山)에는 둔포(屯浦)장
  큰애기 술장사 제일이라
보은(報恩)청산 대추장은
  처녀장꾼이 제일이요
엄범중천에 충주(忠州)장은
  황색연초 제일이요
천안(天安)이라 옛장터는
  능수버들이 척 늘어졌다.
지리구 지리구 잘한다.
  품바품바 잘한다.

장타령은 어느 지방에도 전승되어 있으며 각기 향토적 특색을 나타낸다. 그 향토의 산물(物產)이라던가 풍속(風俗)이 노래속에 반영되며 향토성을 드러낸다. 이상에서 내포지방의 민요를 일별(一瞥) 하였거니와 그러면 내포민요가 우리 민요의 전반에서 볼 때 어떠한 위치에 있으며 또는 여하한 특색 내지는 타지방의 민요와 비교해서 색다른 점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도 있거니와 옛부터 충청도인을 청풍명월이라 해서 그 기질이 유순하면서 강직하고 담백하고 청아한 점에 대하여 누구나 호감을 가지고 있지마는 그 반면에 우유부단해서 과단성이 적은 것도 사실이다. 한국민요의 지역적 특성을 말 할 때에 흔히 경풍(京風)의 우아(優雅)함과 한가한 경향요(京鄕謠), 유화(柔和)하고 구성지고 여유있는 호남요(湖南謠), 애상적(哀傷的)이며 수심(愁心)진 서도요(西道謠) 웅장하고 위압적인 영남요(嶺南謠) 등으로 평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향토인의 기질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말한다. 즉 영남인을 교산태악(喬山泰岳)이라 하는 만큼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웅장하고 위엽적이란 말에는 공감이 간다.

평안도(平安道)의 청산맹호(靑山猛虎)와 황해도(黃海道)의 석전경우(石田耕牛)도 그 선천적 기질이 민요상에 반영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와는 반대로 애상적이며 수심(愁心)진 노래가 많은 것을 보면 그들의 용맹성은 민요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해서 내포의 민요가 청풍명월의 반영일 수도 있으나 서도민요의 예처럼 그와는 반대일 수도 있다.

유교가 우리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내포지방에 있어서도 그 영향이 농후하다. 민요가 미분화예술로서 무용 · 음악과의 관련이 불가분 한데. 이곳 내포의 민요는 무용성이 결여되어 있다. 창에 있어서는 남창은 더러 들을 수 있으나, 호남이나 서도에 비해서 여창이 많지 못하다. 그 이유는 유교적인 생활의식에 있어서 가창(歌唱), 가무(歌舞)는 여러가지 제약이 있었기에 이와같은 결과를 가져 왔으리라 믿어진다. 유교에서는 노래나 춤같은 것은 사대부의 관여할 바 아니라고 경원(敬遠)했던 것이며, 이러한 생활관이 양반인 청풍명월의 긍지를 더욱 존대(尊大)한 것으로 만들었으니 노래를 부른다던가 춤을 춘다던가 하는 것은 그들 사회에서 백안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포지역은 서해바다에 임해 있고 넓은 평야가 있어 농경에 알맞는 곳이다. 따라서 농사일을 하면서 부르는 농요(農謠)가 많이 전 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홍성의 결성농요이다. 결성농요는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바 있거니와 구성진 가락이 향토민요로서 높이 평가 되고 있다. 결성은 우리나라 최고의 고수(鼓手)이며 무용가였던 한성준(韓成俊)의 출생지이고 지금도 현지에는 많은 소리꾼들이 있어 농요의 보존에 주력하고 있으니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소리의 고향으로서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농요 보존의 고향이란 명예를 지키고 있다.